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신 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색채의 층을 통한 식물이미지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이 예 진

색채의 층을 통한 식물이미지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신 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이 예 진

인 준 서

이예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색채의 층을 통한 식물이미지 연구를 주제로 2016년 ‘실체, 실체’라는 석사 학위 청구 전시의 작품부터 2020년까지의 작업을 바탕으로 기술되었다.

본인은 식물이 성장하며 나타나는 색의 그라데이션(gradation)에 주목해 작업의 한 형식으로 재해석해 보았다. 식물은 싹을 틔우고 자라나 꽃이나 열매를 맺으며 시들고 말라간다. 이러한 식물의 변화가 본인에게 있어서 작업의 모티브가 되었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관찰하게 되었다. 색은 시각을 통해 받아들여지고 인지되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한다. 그 중 초록은 자연과 순수를 상징하며 생명과 에너지, 성장 등을 뜻한다. 이처럼 색은 시대와 문화마다 가진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일상을 장식한다. 이렇게 색이 가진 상징성을 통해 감정과 기억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식물이 가진 초록의 색채를 작업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자연을 느낀 그대로 사진에 담은 후 포토샵(photo shop)을 이용해 식물에 담긴 그라데이션을 하나의 레이어로 구분 지었다. 그 후 배접을 이용해 평면의 화면위에 레이어를 한 겹씩 쌓아올리며 작업을 완성시켰다. 본인은 이런 과정을 단순한 심미적 식물의 아름다움이 아닌 각자의 색이 가진 고유성과 특성을 살려 보여주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자 하였다.

따라서, 색채의 층을 통한 식물 이미지 연구는 단면적인 식물의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들여다보면 훨씬 많은 것들을 마주할 수 있으며 그 색을 통해 시각적으로 즐거움 또는 위로가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식물의 색채와 특성	3
2. 표현기법을 통한 조형성	7
1) 색의 레이어와 감정	7
2) 배접을 통한 표현	10
3. 작품설명	14
III. 결론	28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뒤먹을래, 30×30cm 4ea, 캔버스에 혼합재료, 2016	15
【작품 2】	초록동색, 90.9×60.6cm, 장지 13겹에 채색, 2016	16
【작품 3】	초록동색, 53.0×33.4cm, 순지 10겹에 채색, 2016	16
【작품 4】	초록동색, 162.2×130.3cm, 장지 8겹에 채색, 2016	17
【작품 5】	초록동색, 27.3×22.0cm 12ea, 장지 여러 겹에 채색, 2016	19
【작품 6】	초록동색, 40.9×31.8cm, 장지 8겹에 채색, 2017	20
【작품 7】	초록동색, 40.9×31.8cm, 장지 4겹에 채색, 2017	20
【작품 8】	Bohol, 116.8×91.0cm, 장지 5겹에 채색, 2018	21
【작품 9】	fragrant plantain, 27.3×22.0cm, 2019 의 부분	22
【작품 10】	Cactus of botanical garden, 194.0×130.3cm, 장지 8겹에 채색, 2019	23
【작품 11】	Grass, 160.6×65.1cm 장지 5겹에 채색 2019	24
【작품 12】	Spectrum, 20.0×20.0cm 3ea, Masking tape, 2019	25
【작품 13】	Spectrum, 40.0x40.0cm, Masking tape, 2019	25
【작품 14】	A little forest, 130.3×97.0cm, 장지 7겹에 채색, 2020	26

도 판 목 차

[도판 1] <La tristesse du roi>, 292.0×386.0cm, 과슈를 칠한 색종이 콜라주, 1952	12
--	----

I. 서론

자연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며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등의 존재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자연 속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자연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낀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는 자연에서부터 오는 색(色)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무수한 자연 중 초록색을 가진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식물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포착해 작업으로 옮기고 있다. 식물은 씨앗으로부터 뿌리·줄기·잎을 생성해 내며 이후 점차 무게와 크기를 더해간다. 이러한 과정에 식물은 여러 가지 색을 가지며 변화한다. 본인은 식물이 성장하며 나타나는 색의 그라데이션(gradation)을 이용해 작업의 한 형식으로 재해석해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과 표면의 색상 변화를 보고 생긴 흥미로부터였다. 본인은 이러한 색상변화를 각각의 색으로 구분해 보고자 했지만 사람의 손과 눈으로 일일이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포토샵(photoshop)을 이용해 색의 경계를 구분지어 보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레이어를 색의 형태 별로 장지를 잘라 겹겹이 쌓아올려 작업을 완성시키고 있다. 이러한 레이어는 각각 고유의 색을 지니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사물로 볼 수 있다.

레이어를 쌓아 올리는 방식을 적용한 본인의 작업인 ‘초록동색(草綠同色)’ 시리즈에 이러한 의미를 담아 구체적으로 작업을 시작하였다. 초록동색은 풀빛과 녹색(綠色)은 같은 색(色)이라는 의미이다. 이 의미는 초록이라는 다양한 색을 하나로 통일시켜버리는 의미이지만 반대로 초록 안에 다양한 색이 존재한다는 말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본인은 색에 대

한 관심을 갖고 식물을 관찰해 본인의 작업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색채를 통한 식물의 이미지 표현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두며 <초록동색>시리즈와 식물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연작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았다.

본론에서는 작품의 주제인 식물의 색채에 관해 기술하며 자연과 식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식물의 색인 초록색의 특징과 상징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의 표현기법에서는 색의 레이어와 감정에 대해 알아보며 식물이 가진 다양한 레이어를 포토샵의 툴을 이용해 구분 짓는 것과 초록이 가지는 감정에 대해 기술하며, 이어서 본인의 작업 중 배접을 통해 색상의 레이어를 쌓아올리게 된 과정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며 중첩으로 생긴 시각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하며 식물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과 본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작업의 표현 과정과 재료의 연구에 대해 비교 분석하며 앞으로 나아갈 작업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식물의 색채와 특성

색채는 물리적 현상인 색이 감각기관인 눈을 통해서 지각되거나 그와 같은 지각현상과 마찬가지로의 경험효과를 가리키는 현상이다.¹⁾ 색(色)은 빛, 빛깔이라는 명사적 의미가 있고, 채(彩)는 ‘무늬’나 ‘채색’, ‘윤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색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여러 가지 감정을 호소할 수 있는 매개체다. 본인은 다양한 색으로 변화하는 자연과 그 속에 어우러진 식물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식물이 가진 고유의 색을 하나씩 표현해 보고자 한다.

식물에서의 초록색은 대부분 엽록소에 의하여 발색되며 대부분 줄기나 잎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식물들은 각자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으며 계절이나 환경의 요인을 받아 여러 가지 색으로 변화한다.

초록색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도 했었다. 춘록색(春綠色)은 겨우내 움츠렸던 버들가지에 물이 오르면서 갓 돋아나는 어린잎의 색, 유록색(柳綠色)은 며칠 뒤 봄기운이 좀 더 들어간 버들잎 색으로 노란빛을 띤 연한 초록색이다. 유청색(有廳色)은 완전히 핀 버들잎 색으로 짙은 청록색을 띄고 있다.²⁾ 이렇게 초록색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진 까닭은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식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초록색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에 나무, 풀, 식물원, 우거진 숲 등 다양

1) 박연선, 『색채용어사전』, 국립국어원, 2007.

2) 오수연, 『색의 유혹-색채심리와 컬러 마케팅』, 살림, 2004, p.7

한 식물에 관련된 장소들이나 이미지가 연상될 것이다. 이러한 색은 시각을 통해 받아들여지고 인지되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한다. 초록색은 자연과 순수를 상징하며 생명과 에너지, 성장 등을 뜻한다. 각각의 색은 그 시대와 문화마다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색이 가진 상징성을 통해 감성을 전달 할 수 있으며 저마다 색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비슷할 것이다.³⁾

자연의 한 부분인 식물은 대표적으로 초록의 색을 띄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식물 속에는 흰색부터 아주 진한 초록 또는 검정의 색을 가지고 있기도 꽃이나 열매를 피울 때에는 빨간색 또는 여러 가지 색을 띄게 된다. 그러한



[그림 1] 【작품 10】의 부분 이미지

3) 이혜진, 「식물이미지를 통한 삶의 모습과 생명에 대한 사유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6, p.6

색은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에 나타나게 되는데 노란색에 가까운 연두색에서부터 진한 초록색을 띄며 그라데이션(gradation)을 이룬다. [그림 1]은 【작품 10】의 부분 이미지이다. 본인은 【작품 10】과 같이 식물이 나타내고 있는 색을 구분지어 각자의 색이 가진 특성을 보여주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의 식물로 보여지게 된다. 이러한 작업 과정은 자연에서 오는 본연의 색에는 원색의 초록색이 아닌 무수한 색이 담겨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⁴⁾는 “나무나 관목들, 식물들은 대지의 장식물이며 옷이다. 바위와 진흙과 모래만을 드러내 보이는 황량하고 험벗은 들판의 정정보다 더 우울한 것은 없다. 하지만 자연에서 생기를 얻고, 흐르는 물과 새들의 노래 속에서 결혼 예복을 입은 대지는 3계의 조화 속에서 인간에게 생명과 흥미와 매력으로 충만한 광경을 제공해준다.”⁵⁾ 라고 하였다. 이렇듯 인간은 식물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며 생기를 얻는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 휴식을 취할 때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을 찾아 환기를 하고 동화된다. 본인에게 있어서 초록의 자연은 안식처가 되고 심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또한 인간과는 떼어 낼 수 없는 존재이며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본인은 자연이 품고 있는 식물을 한 폭의 사진에 담아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으로 시작을 한다. 어느 장소에 가거나 마음에 드는 사물이 놓여있을 때 버릇처럼 사진을 가장 먼저 찍는다. 아마도 sns를 시작하며 생긴 버릇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저장된 사진들은 어느 날 비슷한 것을 마주했을 때 기억을 상기시키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 중에 본인

4) 장 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 1712 -1778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소설가. 작품은 《신 엘로이즈》, 《에밀》, 《고백록》 등이다. 프랑스 혁명에서 그의 자유민권 사상은 혁명지도자들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다. (두산백과)

5) 장 자크 루소, 김모세 옮김,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부북스, 2010, p.124

에게 가장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된 이미지는 초록의 식물들이었고 그 기억은 항상 포근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강했다. 이러한 계기로 식물을 담은 사진을 본인의 작업으로 끌어와 이미지를 통해 색을 관찰하며 구분하는 과정을 거쳐 작업의 한 부분이 되었다.

식물은 싹을 틔우며 자라나 꽃이나 열매를 맺으며 시들고 말라간다. 그리고 계절마다 반복한다. 이러한 식물의 변화가 본인에게 있어서 작업의 모티브가 되었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관찰하게 되었다.

2. 표현기법을 통한 조형성

1) 색의 레이어와 감정

레이어(layer)는 여러 개의 면이 겹쳐져 하나의 덩어리 또는 이미지로 지형이나 지층 등이 층을 이루고 쌓여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레이어는 포토샵(photoshop)이나 일러스트(illustrator)등의 어도비(adobe)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개별적인 여러 개의 작업 상태를 층별로 형성하여 원하는 이미지들을 선택하여 보는 것이 가능하며 작업 및 수정할 수 있는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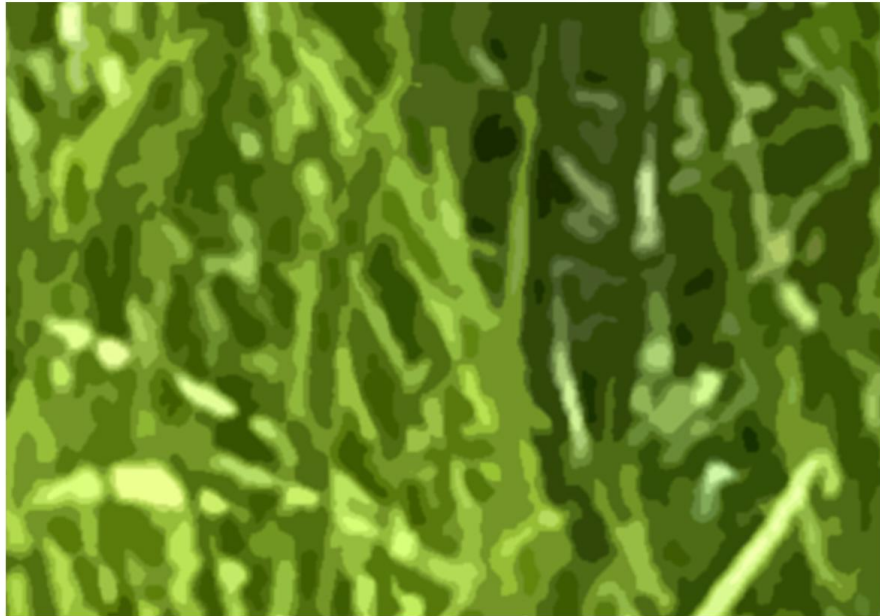
레이어는 중첩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중첩은 각각의 면들이 서로 겹쳐지거나 가로질러 공간감을 만들거나 착시효과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효과들은 다양한 동적 효과를 일으키기도 우연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보다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한다.

작업표현방식의 한 부분으로 레이어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자연에서 자라난 식물이나 열매의 표면에서 보여 지는 그라데이션(gradation)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부터였다. 그라데이션을 평면에 보여 지고 느껴지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각각의 색을 하나씩 구분지어 보는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그 과정에 포토샵을 이용해 색을 구분 짓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고 다양한 색을 연구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포토샵을 이용해 여러 가지 이미지를 실험해 보며 작업에 옮기게 되었다.

본 연구는 포토샵 프로그램의 툴을 작업의 한 형식으로 가져와 이미지화 시킨 식물의 색을 구분하기 위해서 포토샵의 Lasso⁷⁾ tool을 사용한다.

6) 최혜진, 「투명 소재에 의한 레이어링 방법을 응용한 입체적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15

7) 올가미, 밧줄 등의 의미, (옥스퍼드 영한사전)



[그림 2] 【작품 11】의 포토샵 작업과정

Lasso tool은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올가미처럼 개체를 묶어서 선택 할 수 있는 사용도구이다. 이러한 포토샵의 툴을 이용해 색상의 레이어를 만든다.

[그림 2] 는 【작품 11】의 작업 과정에 쓰인 자료이다. [그림 2]와 같이 포토샵을 이용해 밝은 초록색부터 짙은 초록까지 여러 가지의 레이어로 색을 구분 지은 후 각각 색상의 레이어로 만든다. 이와 같은 작업은 등고선에서 모티브가 되었다.

등고선은 같은 고도를 갖고 있는 여러 점들을 이은 선으로 만들어 지형의 기복을 나타내며 3차원의 지형의 높낮이를 2차원 지도상에 여러 가지 색상의 등고선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본인은 같은 색을 가진 부분끼리 하나의 레이어로 만든 후 색상의 레이어를 장지를 이용해 형태별로 자른 후 쌓아올려 작업을 진행한다. 이것은 등고선의 표현을 역전시켜 2차원 평면을 다시 높이가 있는 사물, 지형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평면작업이

아닌 컷팅을 해 부조로 쌓아올리는 이유는 1차원적 평면이 아닌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각각의 레이어가 가진 색의 독창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색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내포되어있다. 색과 감정의 관계는 일생을 통해 쌓아가는 일반적인 경험이다. 인간의 경험은 오감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았던 것 만졌던 것 냄새, 맛, 소리로 경험이 저장된다.⁸⁾ 예를 들어 관람자는 본인의 작품의 초록색을 보고 지난날 여행을 갔던 장소를 떠올리거나 잎들이 자라나는 봄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색이 드러내는 시각적 요소는 언어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 본인은 여러 겹의 레이어로 화면을 구성하며 초록의 시각적 언어로 작업에 표현한다. 또한 색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더 많은 레이어를 구분 짓는다.

본인에게 있어서 레이어를 만드는 과정은 식물 안에 속해있는 개별적인 색의 성향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다양한 관찰을 하고 기록하기 위한 과정이다. 또한 단순한 초록의 이미지 안에 얼마나 많은 색이 내포되어있는지 보여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식물은 반복된 형태로 자라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태 안에 또 다른 색의 모양들로 자리 잡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식물이 가진 다양한 형태와 색에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며 작업하고자 한다.

8) 김중옥, 「색상과 감정표현에 따른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5

2) 배접을 통한 표현

본인은 앞장에 서술 한 것과 같이 식물의 색을 구분지어 작업을 진행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색의 레이어는 장지 위에 분채를 사용해 각자 다른 초록색으로 채색하고, 배접 방식을 이용해 레이어를 합친다. 여기에서 장지⁹⁾는 닥으로 만든 순지 중에서도 크고 두터운 종이를 이르는 말이다.¹⁰⁾

본인은 레이어를 쌓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장지를 사용해 보았다. 처음에는 3합 장지로 작업을 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두꺼워 종이와 밀가루 풀이 마르는 과정에 종이가 말리는 현상이 일어났고 그 후 순지¹¹⁾로 재료를 바꾸어 보았다. 순지는 특성상 물감을 여러 번 쌓지 않아도 발색이 잘되어서 편리하고 좋지만 생각보다 색이 가볍고 겹이 쌓여진 시각적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그 중 2합 장지가 본인의 작업에 가장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배접은 종이를 천위에 포개어 붙이는 것으로 본래 목적은 작품의 보존, 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족자, 액자, 병풍 등으로 표구하는 방법이다. 배접 방법은 크게 접착제를 사용한 배접과 사용하지 않는 배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²⁾ 본인은 전자의 접착제를 사용한 배접 기법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 중 가장 오래된 방법인 밀가루 전분을 이용한 배접을 한다.

밀가루 전분은 직접 밀가루를 반죽한 후 지방을 제거해 전분만을 정제한 소맥전분 풀과 흔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밀가루 풀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장단점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소맥전분 풀은 곱고 접착력이 강하지만 만드는 과정이 손이 많이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밀가루 풀은 편리하지만 접착력이 약하고 수축과 팽창이 커지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9) 우리나라에서 만든 종이의 하나. 두껍고 질기며 질이 좋다. (표준국어 대사전)

10) 김선미, 「한국 채색화의 재료와 기법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74

11) 닥으로 만들어진 종이 (한국 채색화의 재료와 기법연구, 김선미)

12) 황채금, 「근대유화의 수복기술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11



[그림 3] 【작품 2】 부분

본인은 후자인 밀가루 풀을 사용하지만 물을 충분히 섞어 곱게 만들어 배접을 하는 방법을 사용해 작업하고 있다.

[그림 3]은 【작품 2】의 부분 이미지이다. 이와 같이 배접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작업은 부조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배접으로 생겨난 중첩은 서로 다른 형태의 덩어리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하나의 구조를 만든다. 단순한 레이어의 상태와 반대로 결합 되었을 때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해주며 공간감을 만들어 준다. 식물의 패턴으로 다양한 중첩된 이미지를 만들어 단순한 부분과 복잡한 부분을 형성해 깊이감과 평면적인 느낌을 어우러지게 주었다. 이것은 또한 여러 가지 시각효과를 주는 것과 같다.

이러한 본인의 작업 방식과 공통된 기법에는 파피에 콜레(papier collé)¹³⁾

13) 1910~1911년경, 브라크와 피카소가 시작한 큐비즘의 표현기법. ‘분석적’(analytique [프]) 단계(1910~12)에 와서, 추상적인 선의 요소와 해체된 큐비즘의 화면에 현실감과 일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신문지, 모양지, 상표, 털, 모래, 철사 등을 붙여 새로운 조형효과와 물체감을 도입함. 다다와 쉬르레알리즘의 콜라주로 발전. 20세기 회화에서 오브제 의식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된 기법이다. (미술대사전(용어편))

라는 기법이 있다. 파피에 콜레는 입체주의 시대에 콜라주(collage)의 일종으로 종이를 붙여 각각 다른 재료의 단편들을 붙이고 조립하는 방법이다.¹⁴⁾ 이 기법은 평면의 흰 화면에 시각적 요소를 채우는 것보다 종이라는 재료를 이용해 그 자체의 질감과 특성을 살려 화면을 구성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기법을 사용한 화가 중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¹⁵⁾는 회화작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말년에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붓 대신 색종이를 오려 색면구성을 하였다. 이 시대의 조형적 언어는 색채, 면, 공간이



[도판 1] <La tristesse du roi>, 292.0×386.0cm, 과슈를 칠한 색종이 콜라주, 1952

14) 세계미술용어사전

15) 앙리마티스 Henri Matisse 1869-1954 프랑스의 화가. 그가 주도한 야수파(포비슴) 운동은 20세기 회화의 일대 혁명이며, 원색의 대담한 병렬(並列)을 강조하여 강렬한 개성적 표현을 기도하였다. 보색관계를 교묘히 살린 청결한 색면 속에 색의 순도를 높여 확고한 마티스 예술을 구축함으로써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회화의 위대한 지침이 되었다. (두산백과)

강조되었고 화면의 구성을 위하여 오리는 것과 붙이는 개념으로 예술이 발전되었다.

마티스의 Cut-Out 작업으로 대표적인 [그림 3]은 <왕의 슬픔>이라는 작품으로 그의 색채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마티스는 색채에 관심이 많았는데 색채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원색에 가까운 색종이를 사용해 표현과 형태의 자유분방함을 보여주며 또한 네모난 종이를 조각조각 붙여 색채의 화려함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Cut-Out 기법은 이미 칠해진 기존의 색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슈로 자신이 직접 칠한 종이를 사용한 방식인데 그는 붓의 꺾적을 색종이에 은근히 남겨놓아 기존 회화의 행위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¹⁶⁾

본인의 작품인 [그림 2]에서도 이러한 기법을 확인 할 수 있다. 재료와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본인도 색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장지에 식물이 가진 고유의 색을 색으로 칠한 뒤 배접으로 쌓아올리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마티스와 같이 색이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하는 맥락으로 색을 하나하나 구분지어 쌓아올려 공간을 평면 안으로 넣는 작업을 한다. 이러한 기법은 회화적이지만 입체의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것과 같다.

16) 조민정, 「양리 마티스(Henri Matisse)의 회화작품에 나타난 색채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p.44

3. 작품설명

본인은 마음에 드는 풍경이나 대상을 보거나 그 대상의 색채나 모양 등 시각적으로 흥미로움을 느낄 때 부분 부분을 사각 틀의 사진 속에 옮겨 담는다. 색의 경계, 레이어를 따고 축적하는 행위는 본인의 색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식물은 4계절을 성장, 소멸의 과정으로 건디는 반복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식물이 나타내고 있는 고유의 색을 통하여 각각 분할된 단색의 면을 쌓아 입체감을 표현한다. 본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식물의 색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재료나 기법의 표현 연구에 가장 중점을 두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을 보여주며 색이 가진 면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의 작업이 나오게 된 계기인 【작품 1】은 서론에 설명한 것과 같이 사과 표면의 색상 변화를 보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과나 바나나 등의 과일을 떠올렸을 때 상징되는 색이 있을 것이다. 단순한 하나의 색으로 한정지어 볼 수 있지만 그 과일 안에는 자라나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이 있다. 본인은 과일 표면의 색상변화를 각각의 레이어로 분리시켜 캔버스 위에 채색해 작업하였다. 초반에는 캔버스와 아크릴을 사용했는데 질기고 두꺼운 질감을 가지고 있어 세부적인 작업이 어려웠다. 발색을 내기에는 두가지의 재료가 적합하지만 본인의 작업인 레이어를 쌓아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작업의 방향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작품 1】 뒤먹을래, 30×30cm 4ea, 캔버스에 혼합재료, 2016

작업의 방향을 식물로 바꾸게 된 것은 【작품 2】의 초록동색 시리즈부터 시작된다. 【작품 1】과 같이 과일 또는 열매는 작업의 주제가 되기에는 한정적이라고 생각했고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근원은 자연으로부터 있다고 생각했다. 자연은 초록색을 연상시키며 그 초록은 식물로 이루어진 색이기 때문이다. 【작품 2】는 작품의 주제가 되는 식물이 화면 밑쪽부터 2/3정도를 가득 메우고 있는 화면구성을 보인다. 재료로는 3합 장지에 수간채색으로 작업하였다. 3장을 합지 한 3합 장지는 질기고 두꺼우며 레이어를 쌓을 때 마다 깊이감과 입체감을 한 층 더 보여준다. 식물의 모습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화면 뒤쪽 숲으로 이루어진 배경은 장지 위에 바로 채색을 하였

고 앞쪽 식물에만 질감표현을 주었다. 장지로 처음 시도해 본 작업이어서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기보단 어설피고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든다.

【작품 3】은 【작품 2】에 비해 배경이 많이 등장하며 실외에서 실내로 바뀌었다. 배경에는 초록색이 아닌 베이지 톤과 파란계열이 식물과 같이 어우러지고 전 작업에 비해 호분(胡粉)¹⁷⁾을 많이 섞어 작업하였다. 배경과 색채의 변화로 전에 비해 시각적으로 따뜻함과 안락함을 주었으며 색의 변화



【작품 2】 초록동색, 90.9×60.6cm, 장지 13겹에 채색, 2016

【작품 3】 초록동색, 53.0×33.4cm, 순지 10겹에 채색, 2016

17) 흰색 안료. 바닷가 모래사장에 있는 풍화된 대합(大蛤), 굴 등의 조개껍질을 빻아 만들기 때문에 합분(蛤粉)이라고도 한다. 『색채용어사전』

를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작업했다. 이 작업은 【작품 2】에 사용한 3합 장지와는 다른 종이를 사용하였다. 종이는 특성상 액체나 밀가루 풀이 닿으면 마르는 동안 팽창과 수축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 두꺼운 3합 장지가 겹겹이 쌓여 안으로 말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 때문에 【작품 2】에 사용한 3합 장지를 얇은 순지로 바꾸어 보았다. 순지는 장지에 비해 물감을 얇게 올려도 발색이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색을 주제로 작업하다 보니 이러한 특성이 본인에게는 잘 맞지만 입체감이 많이 사라져 마치 평면에 채색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작품 4】 초록동색, 162.2×130.3cm, 장지 8겹에 채색, 2016

【작품 4】는 마구잡이로 뒤섞인 식물들이 모여 자라난 화단의 일부분이다. 대부분 포자식물로 생명력이 강한 식물들을 주로 화면에 구성했다. 본인은 평소 예쁘게 자란 꽃이나 식물보다는 마구잡이로 늘어져 자라난 식물의 모습을 좋아한다. 그런 모습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표현과 어울리며 강한 생명력을 상징해 주는 이미지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표현기법에 있어서 【작품 4】는 여러 가지 재료의 특성과 방식을 여러 번 거쳐 완성된 작품이다. 재료를 다시 한 번 2합 장지로 바꾸어 보았다. 2합 장지는 적당한 깊이감도 있었고 종이의 말리는 현상을 보완할 수 있었다. 전보다 밀가루 풀을 물과 함께 묽게 풀어 최대한 빈틈없이 칠해 붙였다. 색은 아주 어두운 검정색부터 밝은 흰색까지 사용했는데 색의 대비가 커 보이지 않게 가장 어두운 색부터 만들어 색을 입히고 남은 물감에 점점 밝은 색으로 만들어 칠하는 과정으로 작업해 전에 비해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작품 5】 초록동색, 27.3×22.0cm 12ea, 장지 여러 겹에 채색, 2016

【작품 5】는 12가지 다른 종(種)의 식물을 3호 사이즈의 작은 화판에 작업해 보았다. 각각의 식물들은 저마다 다른 색감, 형태, 특성 등을 가지고 있으며 자라나는 방향 구조 등의 조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12개의 작품은 이러한 식물의 색과 특성을 가지고 같은 초록의 계열이지만 모두 다른 색으로 채색되었고 그 특성마다 뾰뾰하게 어떤 것은 느슨하게 화면을 구성해 보았다. 또한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식물을 배경 없이 흰 화면에 구성해 보았는데 이것은 식물이라는 대상의 특성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작품 6】 초록동색, 40.9×31.8cm, 장지8겹에 채색, 2017

【작품 7】 초록동색, 40.9×31.8cm, 장지4겹에 채색,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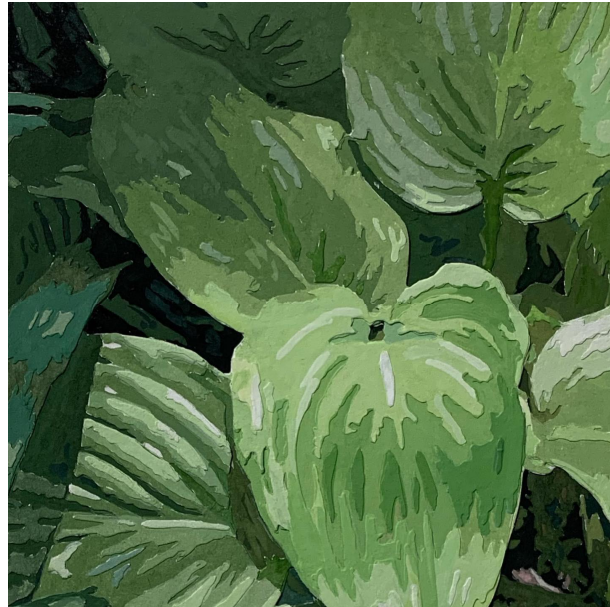
이렇게 본인의 【작품 2】 부터 【작품 7】 까지의 초록동색 시리즈를 나열해 보았다. 본인에게 있어서 ‘초록동색’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변주를 지닌 자연의 모습을 하나의 색으로 통일 시켜버리는 말이지만, 역으로 이 말은 초록이라는 색에 얼마나 다양한 변주가 존재하는가를 상기시켜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본인은 이러한 다양한 식물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의 레이어를 따내고 쌓아올려 채색했다. 장지를 배접하는 것부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이 시리즈는 다소 어설피기도 하고 식물이 가진 유기물적인 특성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다음 작업을 이어나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었다.



【작품 8】 Bohol, 116.8×91.0cm, 장지 5겹에 채색, 2018

【작품 8】은 본인이 여행지에 가서 기억하고 싶었던 풍경을 사진에 담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실제의 풍경은 초록의 열대나무들과 에메랄드빛의 배경이었는데 사진의 포커스(focus)를 바다와 하늘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역광을 표현 하였다. 평소의 작업방식과 다르게 식물보다는 풍경이 많이 등장해 식물과 함께 어우러진 모습과 식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였다. 옅이 가지는 색과 옅 사이사이로 해가 비추어 빛에 의해 나타내는 색을 표현해보았다. 본인의 작업은 늘 밝은 초록색 계열을 사용했지만

【작품 8】에서는 회색을 섞은 분위기로 채도와 명도를 낮추었다. 배경은 화면위에 스케치를 해 채색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나무의 잎사귀들은 종이를 4겹 겹쳐 배경과 멀어지는 느낌을 주었다.



【작품 9】 fragrant plantain, 27.3×22.0cm, 2019 의 부분

【작품 9】와 【작품 10】은 본인이 평소 즐겨가는 식물원에서 가져온 이미지이다. 【작품 9】는 옥잠화라는 백합과의 식물이며 서로가 엉겨 붙어서 무리를 이루고 나뭇의 질서를 유지하며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곡선의 무늬들이 많이 나타나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작품 10】은 선인장의 한 종류로 키가 큰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계절 특성상 이러한 선인장은 보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식물원의 온실에서 마주할 수 있다. 식물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최대한의 큰 사이즈로 작업하였고,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여 깊이감과 입체감을 주었다.

이전 작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이와 종이가 합쳐지는 틈이 희끗희끗하



【작품 10】 Cactus of botanical garden, 194.0×130.3cm, 장지 8겹에 채색, 2019

게 보여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동양화의 붓은 먹이나 물감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 채색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붓으로 틸을 채색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단단하고 탄력이 강한 서양화 붓으로 바꾸어 보았다. 재료뿐만 아니라 채색할 때도 물을 적게 사용하고 여러 번 덧칠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바꾸어 조금 더 선명하고 색의 경계가 또렷이 보인다.



【작품 11】 Grass, 160.6×65.1cm 장지 5겹에 채색 2019

본인은 단순한 식물의 겉모습과 색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번에는 식물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작품 11】은 전체적으로 연두색과 기하학적 패턴의 형상을 띄고 있다. 이 작업은 잔디밭의 한 부분을 확대해 사진을 찍어 작업했는데 전체적으로 선적인 느낌에 추상적인 느낌이 강하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잔디의 형태를 띄고 있어 가까이 보았을 때와 멀리 보았을 때의 이미

지가 다름을 느낄 수 있는 작업이다. 또한 잔디는 초원, 풀밭을 연상시키며 땅에 넓게 깔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특성에 맞추어 그림을 볼 때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유도하며 잔디밭을 연상 시킬 수 있게 최대한 아래쪽으로 설치를 해 보았다.



【작품 12】 Spectrum, 20.0×20.0cm 3ea, Masking tape, 2019



【작품 13】 Spectrum, 40.0x40.0cm, Masking tape, 2019

【작품 12】와 【작품 13】은 새로운 재료인 마스킹테이프(Masking tape)를 이용해 작업 해 보았다. 마스킹 테이프는 인간과 기계가 만들어낸 인위적이고 독특한 색의 재료이다. 본인은 기계가 찍어낸 다양한 색들로 억지스럽거나 조금은 딱딱하게 초록의 자연을 만들어 화판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배경에 테이프를 올린다. 이러한 작업을 한 이유는 나무의 결이 그대로 보여 지는 자연스러움 위에 인위적인 테이프의 딱딱함을 더해 대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완성된 작업은 자연을 그대로 재현한 작업과 조화를 이룬다. 이것은 마치 자연의 식물과, 온실 속의 식물 같이 오늘날의 인간이 만들어낸 대비되지만 그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진 자연을 보여준다.



【작품 14】 A little forest, 130.3×97.0cm, 장지 7겹에 채색, 2020

【작품 14】는 【작품 11】과 같은 방식으로 여름날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모습을 사진을 확대해 작업해 보았다. 아무도 다듬어 주지 않은 상태 그대로의 모습이 그들만의 작은 숲 같아보였고 그러한 모습을 최대한 확대해 형상화 시켰다. 본인은 이 작업을 통해 쓸모없는 잡초에도 자라나고자 하는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음을 다양한 색으로 표현해 보고자 했다. 이렇게 식물이 가진 색을 전체적인 이미지가 아닌 확대를 해 각각의 색을 레이어로 만들었을 때 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색의 특성이 돋보인다고 생각해 앞으로 확대에 관한 작업을 더 해나가 보고자 한다.

Ⅲ. 결 론

색(色)은 사람에게 있어서 시각적으로 중요한 요소이자 소통의 언어이다. 이러한 색으로 이루어진 식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며 어디에서나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이다. 식물은 인간에게 여러 분야의 창작활동에 모티브를 주는 다양한 유기체적인 조형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의 형태와 색을 통해 조형미를 느끼게 해준다. 본인은 이러한 식물의 유기적인 모습과 색채의 특성에 대해 많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느껴왔기 때문에, 이러한 식물에서 나타나는 초록색의 고유색에 대해 분석하고 다양한 재료로 작업해보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색채를 통해 식물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서술해 보았다.

색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세분화 시켜 레이어를 쌓는 작업을 해 보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본인만의 작업 형식을 만들어 나갔다. 본인은 이런 과정을 단순하게 심미적인 식물의 아름다움이 아닌 각자의 색이 가진 고유성과 특성을 살려 보여주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인간과 식물의 유기체적인 관계와 식물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색의 감정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가장 중요시 되는 레이어를 만드는 과정과 배접에 대해 알아가며 본인이 작업하는 과정이 복잡하지만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본인의 석사 학위 청구전의 전시명인 ‘실제, 실체’의 의미같이 단면적인 식물의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들여다보면 훨씬 많은 것들을 마주할 수 있으며 그 색을 통해 시각적으로 즐거움 또는 위로가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즐거움을 찾는 각자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

다. 그중 본인은 자연으로 돌아가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것에 삶의 만족감을 느끼며 사유의 계기가 된다. 본인은 자연의 색에 대한 작업으로서 초록색을 보며 기억을 상기시키거나 감정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작업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관람자 또한 본인의 작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여유와 즐거움을 느끼는 계기가 되는 작업을 하고 싶다. 또한 이번 연구로 알게 된 본인의 작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색과 자연, 식물에 대해 연구하고 앞으로도 본인의 작업 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과 자아성찰을 통해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려한다.

참 고 문 헌

사전

미술대사전

색채용어사전

세계미술용어사전

단행본

박연선, 『색채용어사전』, 국립국어원, 2007

오수연, 『색의 유혹-색채심리와 컬러 마케팅』, 살림, 2004

장 자크 루소, 김모세 옮김,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부북스, 2010

학술자료

김선미, 「한국 채색화의 재료와 기법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종욱, 「색상과 감정표현에 따른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혜진, 「식물이미지를 통한 삶의 모습과 생명에 대한 사유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조민정,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의 회화작품에 나타난 색채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최혜진, 「투명 소재에 의한 레이어링 방법을 응용한 입체적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황채금, 「근대유화의 수복기술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ABSTRACT

Study on Plant Images through Color Layers

—Based on personal works—

Lee, Ye-Jin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 s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is based on art works ranging from the master' s degree requirement exhibition 'Reality, Substance' in 2016, and its subsequent works up to 2020.

Plants in general go through a life cycle of germination, growth, flowering, fruiting, and in the end wilting. The observation of changes that accompany each stage became an inspiration for creative work, and led to a deeper exploration into the essence of natural colors that plants possess. Consequently, I have sought to reinterpret these natural colors in a form of art, where raw gradation of colors are reborn with the addition of human emotions.

Though perceived through the eye, colors are ultimately interpreted by the brain. Here, mere spectrums of light are transformed into a multitude of emotions and meanings. For instance, the color green is typically known to signify values such

as nature and its purity, or the energy of life and growth. Like this, colors permeate into every aspect of our lives, adorning every day with various vibes.

In order to share personal emotions and memories with the world through colors, I found Photoshop to be the best method to utilize the inherent symbolism that colors bear.

After taking a photograph of nature in a way that best represents my personal sensation, I divided the natural gradation of plants into separate layers through Photoshop. Then, I reconstructed the image by restacking the multiple layers back onto a flat plane. Through this process of personal reinterpretation, I focused not on revealing the apparent aesthetic appeal of the plant itself, but rather the characteristics and the identity of individual colors that comprise it.

In conclusion, “The Study on Plant Images through Color Layers” led to the realization that once observed with the intention to see the “substance” of nature, plants offer so much more than their mere exteriors. In a modern society that is so demanding and perhaps even suffocating, nature’s soothing array of colors provide more than just visual delight. It embraces us with comfort, giving consolation to those exhausted.